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권용준** · 윤현정***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 관련 변인으로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것과 정서문제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 행복감 관련 구조모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 데이터 1,129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그것과 정서문제,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교사관계는 그것에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것은 정서문제와 행복감, 정서문제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행복감과 관계에서 그것과 정서문제를 통한 각각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그것과 정서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관계는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것을 통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그것과 정서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비행경험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에서 비행집단에서는 또래관계가 행복감과 정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지만, 일반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행복감과 관련하여 주요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행복감, 사회적 관계, 그것, 정서문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한국영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du_kyj@pro.ac.kr

***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강사

I. 서 론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들은 최악의 취업률, 가족의 해체 및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27개 국가 중 최하위로(류정희 외, 2019), 학력주의와 경쟁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심각한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은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정옥, 정운태, 2014). 이처럼 행복감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제2차 성장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변화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복감은 긍정적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전반적인 반응에 대한 내적·환경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며(박소연, 이흥직, 2013),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강영하, 2008). 또한 선행연구들은 행복감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임을 밝히고 있다(신승배, 2016;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하지만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동향 연구에 따르면(황환, 김영환, 2017),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개인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감과 관련된 환경적·개인적 변인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위의 사회적 집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사회적 관계를 선정하였다. 이는 청소년기가 본격적으로 사회관계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주요 강점요인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민경, 2012;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Diener, 2000; Roberts, Brown, Johnson & Reinke, 2005). 실제 다양한 외부환경 요인들 중 또래, 교사,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ko

& Hamvai, 2010). 또한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선아, 2012).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정경미, 김동원, 2019)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거나, 사회적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은선, 2008).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변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 청소년기에 심리·사회적 특성과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정서문제에 주목하였다. 청소년들이 급격한 신체적·심리사회적 변화와 함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오민아, 조혜영, 2017).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반항적 행위, 약물남용, 학습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및 과잉행동 등 외현화 문제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배주미, 2000; Rohde, Clake, Mace, Jorgensen & Seeley, 2004). 특히 다양한 정서문제들 중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오민아, 조혜영, 2017), 개인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를 우울과 사회적 위축으로 개념화하고,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는 과거부터 주목받아 왔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선행연구들(고은희, 김은정, 2015; 김원경, 2017)은 청소년들의 정서문제가 사회적 일탈에 관한 비행경험을 높이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인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최순미, 정문경, 2019). 즉, 청소년들의 정서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선정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정서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최규련, 2010).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안나영, 유영달, 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김은아, 배민영, 201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들의 정서문제가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개인적 변인으로 정서문제와 함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릿(Grit)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릿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로 정의되며(Duckworth, 2016, p. 29),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김진구, 박다은, 2018; 박선의, 2017). 그릿은 의미 있는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영향 받으며(유지애, 조은애, 이아라, 2019),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정서적 삶을 즐길 가능성이 높고, 그릿과 행복감 간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Duckworth, 2016, P. 352). 이처럼 의미 있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들이 열정을 갖게 하며,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이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것처럼(강문선, 양수진, 2019),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로 선정한 사회적 관계와 정서문제의 구조적 관계에서도 그릿이 주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따라 학교, 가족, 또래 등의 위험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비행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정서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이현진, 2012). 또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서인식과 정서적 반응은 비행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변정은, 최윤경,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초기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비행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서 개인적 요인으로 그릿과 정서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의 여부에 따라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일반집단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을 비행집단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 그릿, 정서문제가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맥락에서 경

힘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요인으로 행복감 관련 주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비행 경험집단과 일반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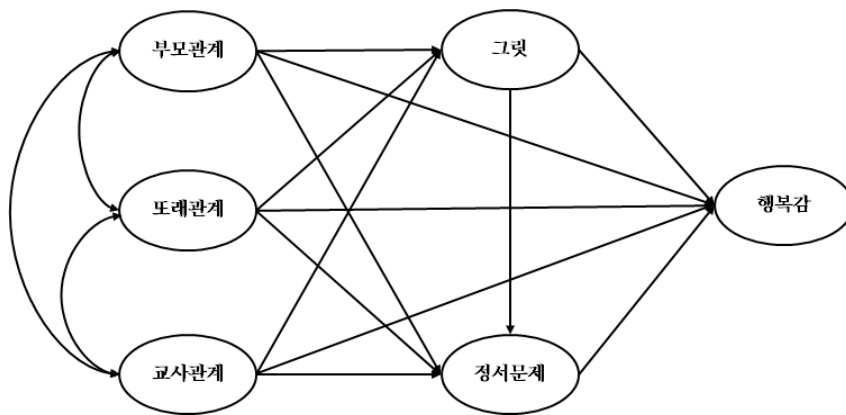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구축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607명, 중학교 1학년 2,590명과 이들의 보호자, 교사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2,590명의 데이터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정하여 총

1,129(100.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KCYPS에서는 비행을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의 선정 기준으로 현실비행 경험을 사용하였다. 이는 중학생 시기의 현실비행이 인과적으로 사이버비행을 예측하며, 현실비행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을 되풀이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재인용). 자료 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 559명(49.5%)을 선정하였고, 비행경험이 없는 일반집단의 경우 무선 할당된 570(50.5%)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은 남학생 377명(67.4%), 여학생 182명(32.6%)이었고, 비행경험이 없는 집단은 남학생 271명(47.5%), 여학생 299명(52.5%)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은 이정립 외(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육아정책연구소 행복지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4번 문항은 역채점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81로 산출되었다.

2) 또래관계

중학생의 또래관계는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관계(8문항), 부정적 관계(5문항) 총 1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관계에 해당하는 8문항만 사용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92로 산출되었다.

3)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AR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RS는 수용성, 신뢰성, 접근가능성, 민감성의 4개 차원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학생의 애착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관계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85로 산출되었다.

4) 부모관계

부모관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PSCQ_K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의 6개 차원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에 해당되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의 3개요인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본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수정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72로 산출되었다.

5) 그릿

그릿 Duckworth의 연구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8-Item Grit Scale-Children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일차원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3, 5, 6번 문항은 역채점 후 점수화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끈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81로 산출되었다.

6) 정서문제

정서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KCYPS 2018에서 사용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영(1998)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 및 문항 수정한 것이며, 우울은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13문항 중 3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5문항), 우울(10문항) 총 15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정서문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는 .92로 산출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집단의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통계치(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를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설문문항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검증은 AMOS 23.0을 이용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분석절차에 따라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고, 간접효과의 경우 팬텀변인을 사용한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개별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측정변인들 간에 적절한 관

련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개별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추정결과 모두 기준치(왜도<2, 첨도<7)를 넘지 않아 정규성의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릿, 정서문제, 행복감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p<.01$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N=1,129$)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73	1										
3	.55	.54	1									
4	.26	.30	.27	1								
5	.25	.27	.26	.19	1							
6	.28	.28	.31	.32	.63	1						
7	.37	.34	.32	.30	.57	.63	1					
8	.31	.33	.30	.25	.59	.66	.65	1				
9	.29	.27	.20	.24	.28	.26	.38	.27	1			
10	-.17	-.16	-.13	-.27	-.11	-.16	-.21	-.15	-.34	1		
11	-.41	-.39	-.27	-.27	-.20	-.23	-.33	-.26	-.49	.54	1	
12	.48	.45	.36	.33	.22	.26	.33	.29	.44	-.37	-.65	1
M	3.33	3.30	3.05	3.11	2.42	2.78	2.84	2.92	2.62	2.14	1.84	3.01
SD	.59	.60	.53	.54	.63	.56	.59	.61	.44	.76	.63	.56
왜도	-.57	-.57	-.24	-.46	-.09	-.29	-.30	-.55	.30	.19	.54	-.34
첨도	.15	.04	.63	1.15	-.09	.72	.62	1.05	.62	-.62	-.11	.35

모든 측정변인 간 유의수준은 $**p<.01$ 에서 유의함.

1. 파스함 2. 자율성지지 3. 구조제공 4. 긍정친구 관계 5. 교사접근가능성 6. 교사신뢰성
7. 교사신뢰성 8. 교사수용성 9. 그릿 10. 사회적 위축 11. 우울 12. 행복감

2. 연구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χ^2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chi^2=182.983(p<.001, df=42)$ 로 나와 적합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하지만 χ^2 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만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우종필,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CFI=.976, TLI=.962, RMSEA=.055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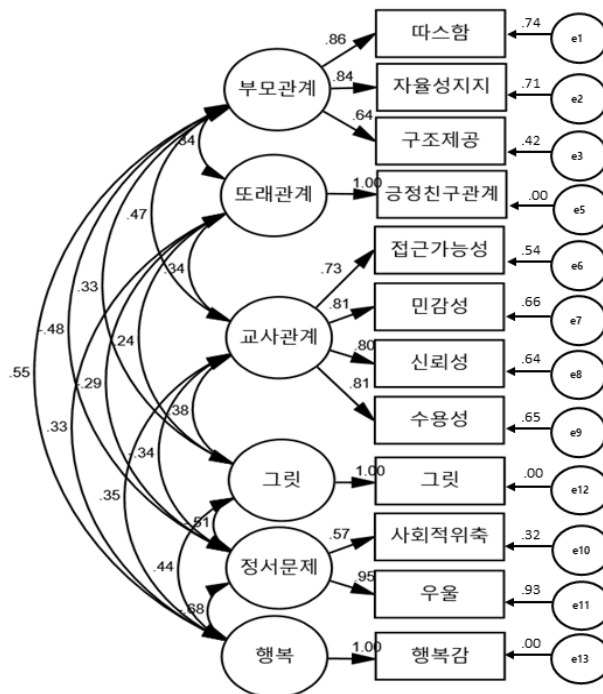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82,983(42)	.976	.962	.055

2) 연구모형의 검증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그릿과 정서문제를 매개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부분매개)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은 측정모형과 동치모델로 나타나, 전반적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의 각 변인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산출한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직접효과)

구분		B	β	S.E.
부모관계	→	.149	.171*	.031
또래관계	→ 그릿	.070	.088*	.024
교사관계	→	.251	.266**	.034
부모관계	→	-.272	-.318*	.033
또래관계	→ 정서문제	-.067	-.085*	.022
교사관계	→	-.017	-.018	.031
그릿	→	-.372	-.379*	.035
부모관계	→	.292	.263*	.035
또래관계	→	.077	.075**	.024
교사관계	→ 행복감	.004	.003	.034
그릿	→	.106	.083**	.036
정서문제	→	-.634	-.487*	.049

** $p < .01$, *** $p < .001$.

부모관계가 행복감($\beta=.263$, $p<.05$), 그릿($\beta=.171$, $p<.001$), 정서문제($\beta=-.272$, $p<.0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가 행복감($\beta=.075$, $p<.01$), 그릿($\beta=.088$, $p<.01$), 정서문제($\beta=-.085$, $p<.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가 행복감($\beta=.003$, $p>.05$), 정서문제($\beta=-.018$, $p>.05$)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으나, 그릿($\beta=.266$, $p<.01$)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행복감과 정서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사관계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교사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그릿을 높이는 반면, 정서문제는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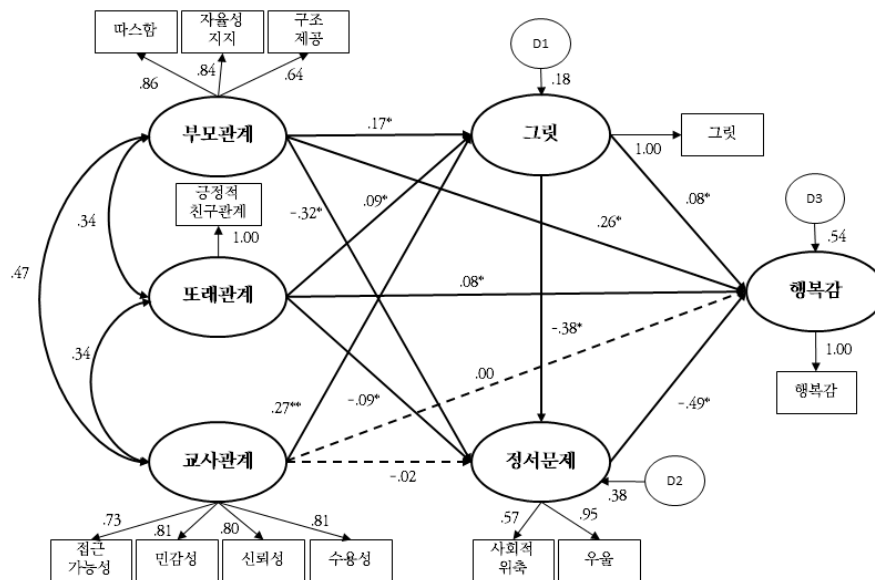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결과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릿, 정서문제 행복

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경로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팬텀변인을 사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는 개별매개효과나 이중매개효과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Sobel 검증법의 기본적인 정규분포 가정에 대한 검증 제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행복감으로 가는 각 경로의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을 통한 간접효과 .016,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효과 .172, 그릿과 정서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친 간접효과 .035로 나타났는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든 경로에서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을 통한 간접효과 .007, 정서문제를 통한 간접효과 .042, 그릿과 정서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친 간접효과 .017로 나타났는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든 경로에서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을 통한 간접효과 .027, 그릿과 정서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친 간접효과 .059로 나타났는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 경로에서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릿을 통한 간접효과 .011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관계(-.055)와 또래관계(-.026), 교사관계(-.093)는 그릿을 통해서 정서문제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경로	간접효과 (B)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관계	→ 그릿→행복감	.016**	.006	.029
	→ 정서문제→행복감	.172*	.126	.212
	→ 그릿→정서문제	-.055*	-.076	-.033
	→ 그릿→정서문제→행복감	.035*	.021	.050
또래관계	→ 그릿→행복감	.007**	.002	.017
	→ 정서문제→행복감	.042*	.015	.077
	→ 그릿→정서문제	-.026*	-.040	-.007
	→ 그릿→정서문제→행복감	.017*	.005	.026

경로	간접효과 (B)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lower	upper
교사관계 → 그릿→행복감	.027**	.011	.050
→ 정서문제→행복감	.011	-.029	.047
→ 그릿→정서문제	-.093*	-.126	-.063
→ 그릿→정서문제→행복감	.059*	.041	.078

* $p < .05$, ** $p < .01$.

3.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구조적 관계 차이 분석

1) 측정동일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연구모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증은 구조모형의 다중집단분석에 있어서 핵심적 과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를 검증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서로 다른 집단들의 자료를 적용하여 집단 간 다양한 가정들을 검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Jöreskog, 1971).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measurement equivalence test)에는 형태동일성 검증과 측정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홍세희, 2007). 우선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위해서 실시한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측정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에 대하여는 일반집단은 $\chi^2=125.172(df=42, p<.001)$, CFI=.971, TLI=.954, RMSEA=.059이다. 비행집단은 $\chi^2=103.014(df=42, p<.001)$, CFI=.978, TLI=.966, RMSEA=.051로 나타나 두 집단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측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구분	$\chi^2(df)$	CFI	TLI	RMSEA
일반집단	125.179(42)	.971	.954	.059
비행집단	103.014(42)	.978	.966	.051

다음으로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검증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델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우종필,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저모형에 해당하는 모형 1과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들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2의 χ^2 값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두 모형 간의 $\Delta\chi^2=16.232(df=6,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 가정이 기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구조모형에 대한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6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구분	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 비교		
	$\chi^2(df)$	CFI	TLI	RMSEA	ΔCFI	ΔTLI	$\Delta RMSEA$
모형 1: 기저모형	228.193(84)	.974	.960	.039	-	-	-
모형 2: 측정동일성	242.525(90)	.973	.960	.039	.001	.000	.000

2)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경험 유무에 따른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구조모형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일반집단의 경우, C.R. 값을 기준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부모관계→그릿 $\beta=.105(p<.05)$, 또래관계→그릿 $\beta=.099(p<.05)$, 교사관계→그릿 $\beta=.319(p<.05)$, 부모관계→정서문제 $\beta=-.363(p<.001)$, 그릿→정서문제 $\beta=-.379(p<.001)$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관계→행복감 $\beta=.265(p<.001)$, 그릿→행복감 $\beta=.103(p<.05)$, 정서문제→행복감 $\beta=-.407(p<.001)$ 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관계와 교사관계→정서문제, 또래관계와 교사관계→행복감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행집단의 경우, C.R. 값을 기준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부모관계→그릿 $\beta=.197(p<.001)$, 또래관계→그릿 $\beta=.083(p<.05)$, 교사관계→그릿 $\beta=.190(p<.001)$, 부모관계→정서문제 $\beta=-.291(p<.001)$, 또래관계→정서문제 $\beta=-.155(p<.001)$, 그릿→정서문제 $\beta=-.372(p<.001)$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관계→행복감 β

$=.267(p<.001)$, 또래관계→행복감 $\beta=.085(p<.01)$, 그릿→행복감 $\beta=.075(p<.05)$, 정서문제→행복감 $\beta=-.539(p<.001)$ 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관계→정서문제, 또래관계→행복감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구조모형 경로계수

	구분	경로	B	β	S.E.	C.R.
일반집단	부모관계	→	.095	.105	.047	2.008*
		→ 그릿	.082	.099	.037	2.212*
		→	.336	.319	.055	6.159***
	부모관계	→	-.335	-.363	.055	-6.065***
		→ 정서문제	.000	.000	.037	-.006
		→	.000	.000	.054	-.009
	그릿	→	-.387	-.379	.053	-7.303***
		→	.280	.265	.055	5.120***
		→	.064	.067	.037	1.722
	교사관계	→ 행복감	-.056	-.046	.056	-1.016
		→	.120	.103	.050	2.382*
		→	-.467	-.407	.061	-7.638***
비행집단	부모관계	→	.163	.197	.041	3.942***
		→ 그릿	.063	.083	.032	1.980*
		→	.159	.190	.042	3.765***
	부모관계	→	-.240	-.291	.043	-5.540***
		→ 정서문제	-.117	-.155	.030	-3.855***
		→	-.025	-.030	.039	-.655
	그릿	→	-.373	-.372	.050	-7.500***
		→	.309	.267	.046	6.669***
		→	.090	.085	.032	2.824**
	교사관계	→ 행복감	.048	.041	.041	1.172
		→	.105	.075	.051	2.037*
		→	-.755	-.539	.076	-9.897***

* $p<.05$, ** $p<.01$, *** $p<.001$.

3) 비행유무에 따른 경로계수 검증

일반 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는 다음의 그림 4에, 비행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는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구조모형의 경로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모두 긍정적 부모관계는 그릿과 행복감을 높이고 긍정적 또래관계는 그릿을 높이며, 긍정적 부모관계와 그릿은 정서문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부모관계는 정서문제를 감소시키나, 정서문제는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행집단의 경우, 긍정적 또래관계는 행복감을 높이고, 정서문제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집단과 경로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의 행복감과 관련 변인들의 각 경로에 대한 작간접, 총효과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반집단의 경우, 부모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265이었고,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175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082로 나타났다.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154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문제가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7로 나타났다.

비행집단의 경우, 부모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267이었고,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211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085이었고,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 .106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그릿과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069로 나타났다.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문제를 거친 간접효과는 .201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문제가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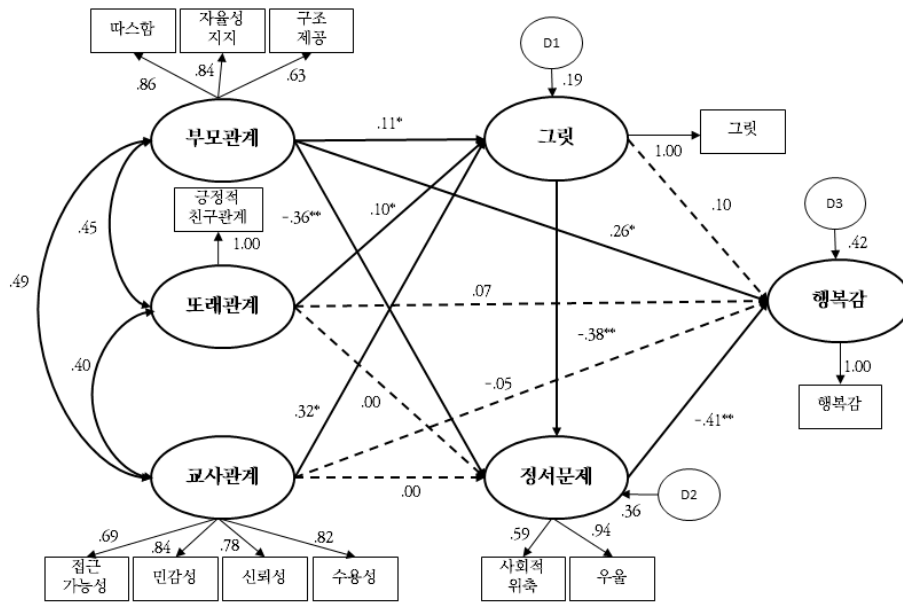


그림 4. 일반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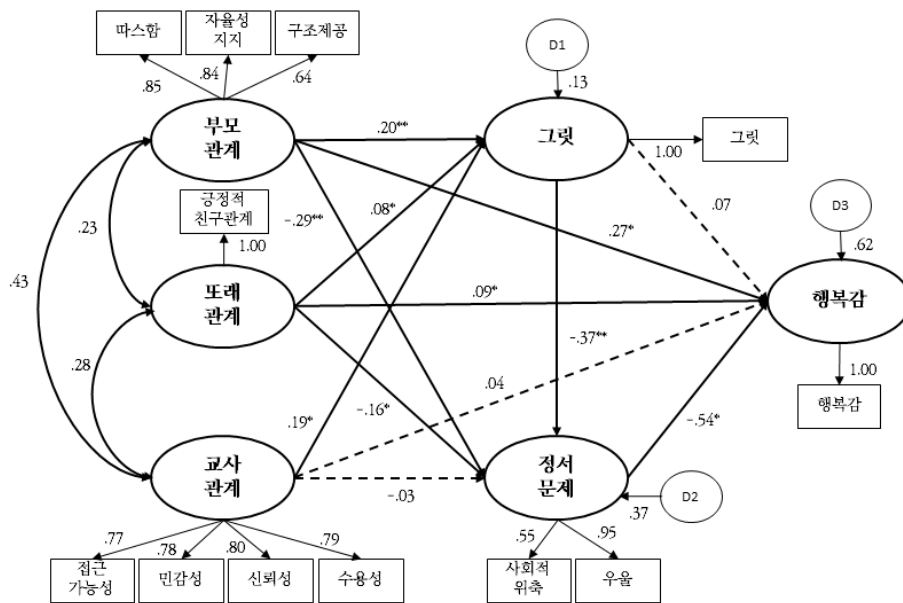


그림 5. 비행집단의 구조모형 경로계수 검증 결과

표 8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일반집단	부모관계 →	.105 [*]	-	.105 [*]
	또래관계 → 그릿	.099 [*]	-	.099 [*]
	교사관계 →	.319 [*]	-	.319 [*]
	부모관계 →	-.363 ^{**}	-.040 [*]	-.403 ^{**}
	또래관계 → 정서문제	.000	-.038 [*]	-.038
	교사관계 →	.000	-.121 ^{**}	-.122 [*]
	그릿 →	-.379 [*]	-	-.379 [*]
	부모관계 →	.265 [*]	.175 ^{**}	.439 ^{**}
	또래관계 →	.067	.026	.092
	교사관계 → 행복감	-.046	.082 [*]	.036
	그릿 →	.103	.154 ^{**}	.257 [*]
	정서문제 →	-.407 ^{**}	-	-.407 ^{**}
비행집단	부모관계 →	.197 ^{**}	-	.197 ^{**}
	또래관계 → 그릿	.083 [*]	-	.083 [*]
	교사관계 →	.190 [*]	-	.190 [*]
	부모관계 →	-.291 ^{**}	-.073 ^{**}	-.364 ^{**}
	또래관계 → 정서문제	-.155 [*]	-.031 [*]	-.186 [*]
	교사관계 →	-.030	-.071 ^{**}	-.101
	그릿 →	-.372 ^{**}	-	-.372 ^{**}
	부모관계 →	.267 ^{**}	.211 ^{**}	.478 ^{**}
	또래관계 →	.085 [*]	.106 [*]	.191 ^{**}
	교사관계 → 행복감	.041	.069 [*]	.109 [*]
	그릿 →	.075	.201 ^{**}	.275 [*]
	정서문제 →	-.539 [*]	-	-.539 [*]

* $p < .05$,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서 개인적 요인으로 그릿과 정서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 구축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패널 1차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그릿, 정서문제,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과 정서문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구조적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릿, 정서문제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그릿에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주요 타인들과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주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위한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를 갖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유지애 외, 2019), 부모애착(강문선, 양수진, 2019)과 부모지지(박용진, 나승일, 2019)가 그릿에 긍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다양한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긍정적 관계는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또래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표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일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와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경민, 2010; 허영선, 2009; Piko & Hamvai, 2010), 그리고 교사와 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선아, 2012)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인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교사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중학교 시기의 발달단계 특성으로 또래관계에 집중되고 교사에게는 점차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Holder & Coleman, 2009).

다음으로 그릇은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효과가 있었고, 정서문제는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평소 생활에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흥미와 관심으로 이어져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와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그릇이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박선의, 2017; 이수란, 손영우, 2013), 그릇이 시련극 복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결과(김진구, 박다은,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즉, 그릇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열의와 끈기를 높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서문제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상황 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감정이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기 통제감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심리적 요인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들(고은희, 김은정, 2015; 김원경, 2017)과 맥을 같이한다. 즉,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기만족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릇을 높이고, 정서문제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부모, 또래, 교사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 적절한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개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릇과 정서문제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와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정서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것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강문선, 양수진, 2019),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결과(김은아, 배민영,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형성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심리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성취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것과 정서문제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관계는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서문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위의 부모와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위에서와는 다르게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것과 정서문제가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에는 또래에 비해서 교사에게 점차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Holder & Coleman, 2009).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관계의 긍정적 개선도 중요할 수 있으나,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성취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비행집단의 경우, 긍정적 또래관계는 행복감을 높이고, 정서문제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집단과 경로의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일반집단과 비행집단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집단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따라 학교, 가족, 또래 등의 위험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정서문제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이현진,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며(이미리, 2003),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모보다 친구가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서 강력하게 작용한다(박영신, 김의철, 2008). 따라서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라면 누구에게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비행집단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행집단의 경우, 가정이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가 개인의 정서적 건강성,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집단의 경우, 부모관계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지만,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 관련 변인들로 그릿과 정서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환경적 요인들과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봄으로써, 일반집단과 비행집단 간의 구체적인 경로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에 걸쳐 수집된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나 시대적 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종단자료를 수집·검증해봄으로써,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을 구분하면서 기존의 선행연구(이종원 외, 2016)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으나, 실제로 KCYPS의 비행 조사항목의 현실비행에 관한 내용의 일부는 비행행동으로 보이에는 다소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행경험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그 정도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집단을 비교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보고식의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단축형 문항들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문항에 대한 신뢰도나 객관성 면에서 해당 요인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충분한 문항개수로 구성된 척도를 실시하고, 자기보고식 응답과 함께 면담도 병행하여 양적인 접근의 한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하 (2008). 초등학교의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21(2), 159-177.
- 강문선, 양수진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화·강박열정과 그릿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발달학회: 발달**, 32(2), 79-101. doi:10.35574/KJDP.2019.06.32.2.79
- 고은희, 김은정 (2015). 우울, 주의집중의 어려움, 인터넷 사용빈도 및 교사/친구관계가 청소년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3), 1-26.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25(1), 40-74.
- 김민경 (2012).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 1-22.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행복감의 관계-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은아, 배민영 (2016).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관계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155-176. doi: 10.21509/KJYS.2016.09.23.9.155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10.21509/KJYS.2017.03.24.3.313
- 김원경 (2017). 청소년 비행 관련 요인의 성별 및 발달적 비교 연구. **학교사회복지**, 39, 313-345.
- 김종백, 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4), 697-714.
- 김진구, 박다은 (2018). 청소년기 그릿과 시련극복역량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51-67. doi:10.16983/kjsp.2018.15.1.51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doi:10.25020/je.2015.35.3.63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주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선의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웰빙과의 구조적 관계-행복감, 성장마인드셋, 그릿 및 희망의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1(2), 73-84.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용진, 나승일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소속감, 부모지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그릿(Grit)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2), 97-120.
- 변정은, 최윤경 (2016). 비행청소년의 정서인식과 정서적 반응강도: 일반청소년과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 361-385. doi:10.21509/KJYS.2016.01.23.1.361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욱, 정윤태 (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1(8), 265-292.
- 신승배 (2016).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과학연구**, 17, 1-50.
- 안나영, 유영달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감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14(5), 3201-3215.
- 오민아, 조혜영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및 우울과 공통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연구: 성취가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1), 125-137. doi:10.7466/JKHAMA.2017.35.1.125

- 우종필 (2014).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지애, 조은애, 이아라 (2019).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973-994. doi:10.22251/jlcci.2019.19.10.973
-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doi:10.16881/jss.2015.10.26.4.413
- 이정립, 김길숙, 송신영, 이유진, 김진미, 김신경 (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기초분석보고서 I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연구보고 16-R17-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진 (2012).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미, 김동원 (2019).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기 격려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1), 73-91.
- 정은선 (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95-111.
- 최순미, 정문경 (2019). 부정적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교통 감내력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5), 145-154. doi:10.5762/KAIS.2019.20.5.145
- 하은혜, 오경자, 송동호,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263-279.
- 허영선 (2009).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환, 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doi:10.1037//0033-2909.103.3.411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doi:10.1037/0003-066x.55.1.34
- Duckworth, A. (2016). **Grit: 그릿** (김미정 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원저 2016 출판)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doi:10.1037/0022-3514.92.6.1087
- Holder, M. D., &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0, 329-349. doi:10.1007/s10902-007-9083-0
- Jöreskog, K. G. (1971). Statistical analysis of sets of congeneric tests. *Psychometrika*, 36(2), 109-133. doi:10.1007/bf02291393
- Piko, B. F.,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doi:10.1016/j.childyouth.2010.07.007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5).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In C. R. Snyder, & Shane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7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ohde, P., Clarke, G. N., Mace, D. E., Jorgensen, J. S., & Seeley, J. R. (2004). An efficacy/effectiveness study of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comorbid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6), 660-668. doi:10.1097/01.chi.0000121067.29744.41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happiness related variables: A comparison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groups

Kwon, Yongjun* · Yun, Hyunjeo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teacher relationships, grit, emotional problems, happiness,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uch variables by delinquency behavior. A total of 1,129 middle school students, whose data was taken from the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2018) 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had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grit, emotional problems, and happiness. Additionally,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had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grit, but it had not a direct effect on happiness.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grit and emotional problem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and peer relationships and happiness. Moreover, gri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happiness. Furthermore, grit and emotional problems double-mediated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parental, peer, student-teacher) and happiness.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happiness between the ordinary and delinquent group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s, happiness, social relationship, grit, emotional problems

투고일: 2019. 12. 9, 심사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2. 13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 Dept. of Child and Youth Education Counseling, PyeongTaek University